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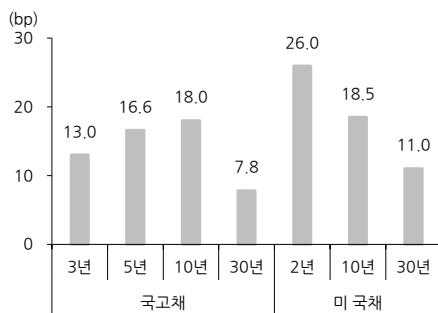
FI Weekly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준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크레딧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9/11)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4.01%	3.93~4.10%	상승
국고 5년	4.27%	4.20~4.38%	상승
국고 10년	4.54%	4.48~4.60%	상승
국고 10-3년	52.6bp	43.0~55.0bp	축소
미국 10년	4.97%	4.85~5.05%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켜볼 이유가 사라졌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려면 ‘물가의 둔화 추세가 몇 개월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 대략 또는 어느정도 추세가 확인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단 한 달이라도 반등하지 않고 꾸준히 둔화되었어야 했으나 8월 CPI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음. 9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

연준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 8월 WTI 평균 가격은 배럴당 83.9달러로 6월, 7월과 유사한 수준. 그럼에도 자동차 연료 CPI는 전년 동기대비 27.4% 상승,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 헤드라인 CPI 상승분 3.4% 중 1.08%p가 에너지 가격으로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견인. 두 번째는 서비스 부문. 월간 기준 근원 서비스 물가는 0.3% 상승해 기초적 물가압력의 재강화를 시사

9월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 동결 소수의견 1~2명이 있는 25bp 인상을 예상하며,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맞춰 단기 구간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 국내외 수익률 커브도 플레트닝 양상이 우위를 보일 것

저원가성 수신 감소로 은행채 발행 압력 확대

은행의 조달 구조가 악화되면서 은행채 발행 유인 확대. 8월 은행 총수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여신 증가율 4.2%를 14개월 연속 상회했지만, 격차는 5월 3.1%p에서 0.3%p로 축소. 여신 확대보다는 수신 둔화로 격차가 줄었으며, 특히 저원가성 수신이 증가세 둔화를 주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올해 개인자금이 증시로 이동했음에도 은행 수신이 증가한 것은 일부 대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유입된 영향. 기업들은 해당 자금을 유동성이 높은 수시입출식 등 저축성예금에 주로 예치. 다만, 기업 단기자금은 예치의 지속성이 낮아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보기 어려움. 4분기 차환 부담도 확대. 2026년 4분기 5대 은행의 만기 도래액은 27.1조원으로 10년 평균(11.8조원)의 두 배. 2024, 2025년 4분기에 발행한 1~2년물이 만기를 맞는 데다, 올해 6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앞두고 FRN을 중심으로 발행한 연내물도 함께 도래하기 때문. 수신 믹스 악화와 대규모 차환 물량을 감안하면 4분기 은행채 발행은 늘어나고 스프레드 축소 여력은 제한될 전망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 채권시장 전망

1. 채권: 인상을 가리키는 CPI

연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것
물가를 지켜볼
명분이 사라졌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려면 ‘물가의 둔화 추세가 몇 개월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은 생각보다 엄격했다. 대략 또는 어느정도 추세가 확인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단 한 달이라도 반등하지 않고 꾸준히 둔화되었어야 했다. 최소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 안되는 것이 ‘추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연준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8월 CPI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인상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8월 유가 급등 없었음에도
에너지 가격 반등

연준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다. 8월 WTI 평균 가격은 배럴당 83.9달러로 6월(84.8달러), 7월(80.5달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동차 연료 CPI는 전년 동기대비 27.4% 상승,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헤드라인 CPI 상승분 3.4% 중 1.08%p가 에너지 가격으로 사실상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을 견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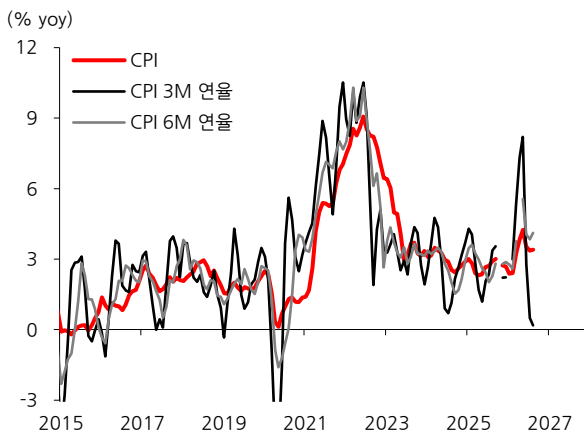
유가와 상관없는
서비스 부문이
근원계열 물가 상승 주도

두 번째는 서비스 부문이다. 공급 측면 압력보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 월간 기준 근원물가(+0.3%)는 주거비(+0.3%), 숙박료(+2.4%), 통신(+2.3%) 등이 견인했다. 근원 서비스 물가는 0.3%상승해 기초적 물가압력의 재강화를 시사했다. 연준이 지금까지 인정한 물가 상승 모멘텀의 세 가지, 관세와 에너지 가격, AI 투자 수요와 다른 부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물가 압력이 아니다.

통화정책 우려
재부각되면서
Bear Flattening
양상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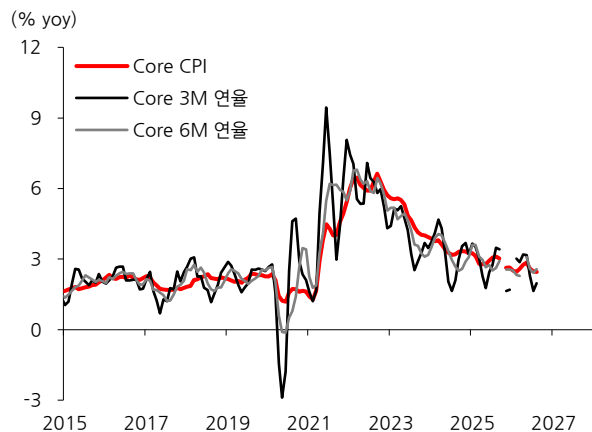
9월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이다. 동결 소수의견 1~2명이 있는 25bp 인상을 예상하며, 중동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벌어지는 긴축 경계감에 단기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고삐를 조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행보에 맞춰 단기 구간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외 수익률 커브도 스틱프닝에서 플랫닝 양상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림1]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 물가 둔화 흐름(헤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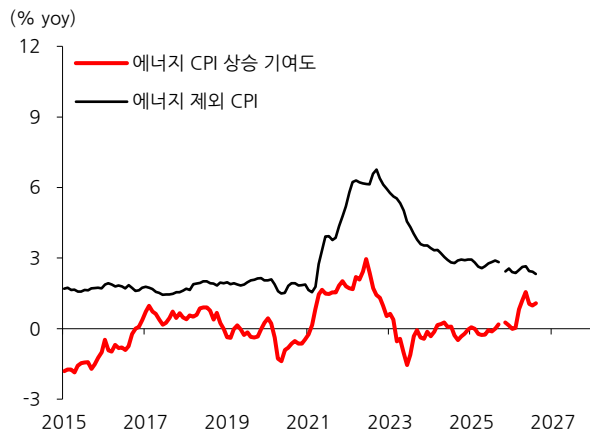
주: 3개월, 6개월은 연율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추세를 이어가지 못한 물가 둔화 흐름(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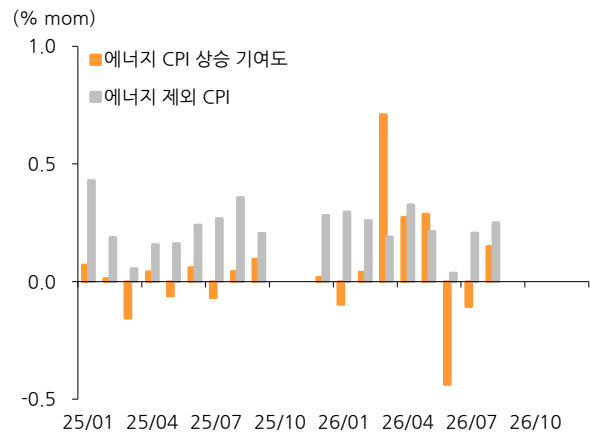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allas Fed, Cleveland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유가 급등은 9월임에도 에너지 압력 재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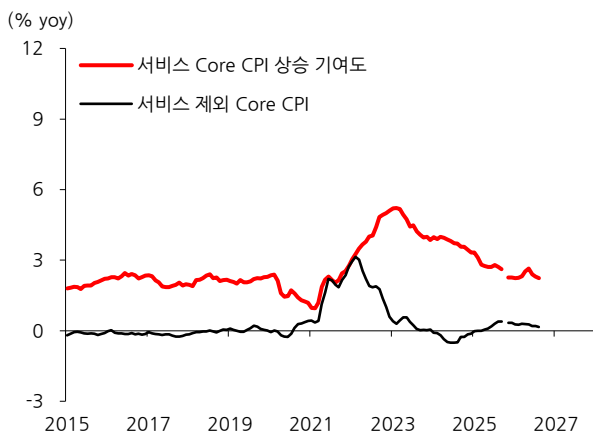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에너지 가격 물가 상승 기여도 (+)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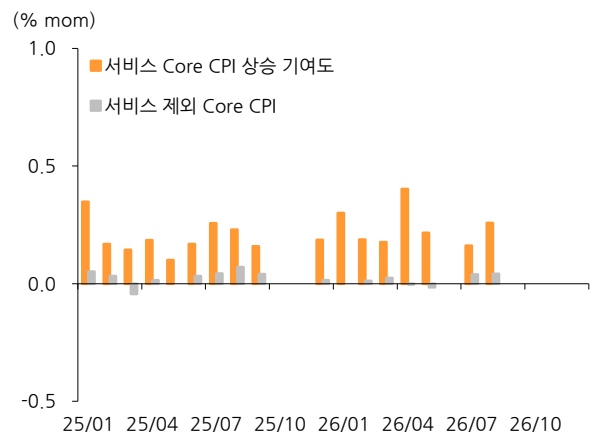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유가와 상관없는 서비스 물가 하방 경직성 유지 중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근원 계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서비스



자료: Bureau of Labou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크레딧: 저원가성 수신 감소로 은행채 발행 압력 확대

저원가성 수신 감소,
은행채 발행 유인 확대

은행의 조달 구조가 악화되면서 은행채 발행 유인이 커지고 있다. 8월 은행 총수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여신 증가율 4.2%를 14개월 연속 상회했지만, 격차는 5월 3.1%p에서 0.3%p로 축소됐다. 여신 확대보다는 수신 둔화로 격차가 줄었으며, 특히 저원가성 수신이 증가세 둔화를 이끌었다. 이달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려면 수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반면 은행채는 부족분에 한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 측면에서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대출 증가는 지속

8월 은행 총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3.2조원 증가한 2,629조원(YoY +4.2%)을 기록했다. 생산적 금융과 회사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배경으로 기업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총수신 잔액은 2,593조원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여신을 소폭 상회하는 4.5%를 기록했다. 가계자금 유입 전환과 지자체 자금의 일시 예치로 정기예금이 증가했으나, 저원가성 수신 감소분을 상쇄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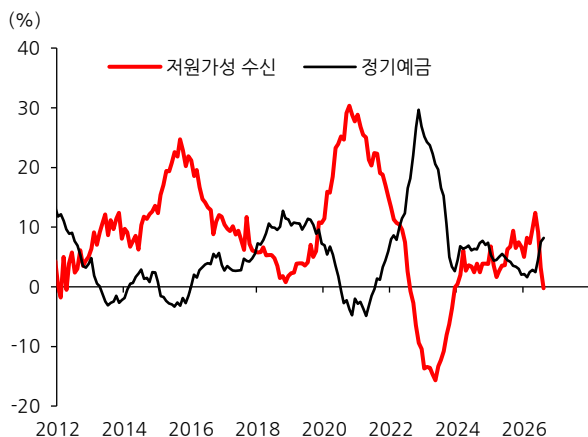
은행 조달 안정성 저하

올해 개인자금이 증시로 이동했음에도 은행 수신이 증가한 것은 일부 대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기업들은 해당 자금을 정기예금보다 유동성이 높은 실세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등 저축성예금에 주로 예치했다. 이에 상반기 저원가성 수신 성장률은 4.2%로 정기예금의 3.8%를 웃돌았다. 다만 기업 단기자금은 예치의 지속성이 낮아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저원가성 수신 감소는 관련된 우려가 반영된 영향이며 은행채를 통한 조달 수요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4분기 5대은행
차환물량 27.1조원

4분기 차환 부담도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요인이다. 2026년 4분기 5대 은행의 만기 도래액은 27.1조원으로 10년 평균(11.8조원)의 두 배를 웃돌며, 직전 최대치였던 2022년 4분기(20.6조원)도 크게 상회한다. 2024, 2025년 4분기에 발행한 1~2년물이 만기를 맞는 데다, 올해 6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앞두고 FRN을 중심으로 발행한 연내물도 함께 도래하기 때문이다. 수신 믹스 악화와 대규모 차환 물량을 감안하면 4분기 은행채 발행은 늘어나고 스프레드 축소 여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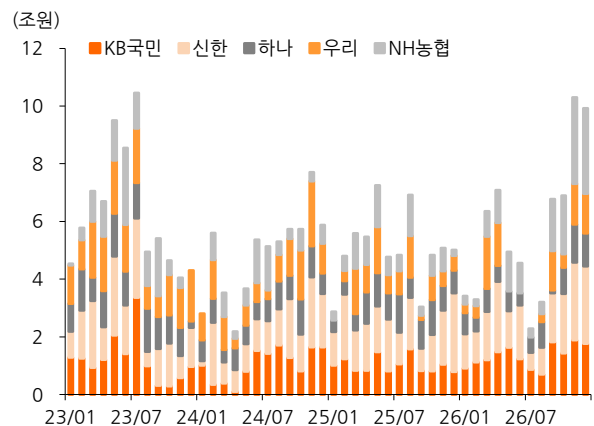
[그림7] 은행 수신 증가율 추이



주: 저원가성 수신은 실세요구불 및 수시입출식 합산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5대 은행 4분기 차환물량 27.1조원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전략 움직일 연준, 추가 반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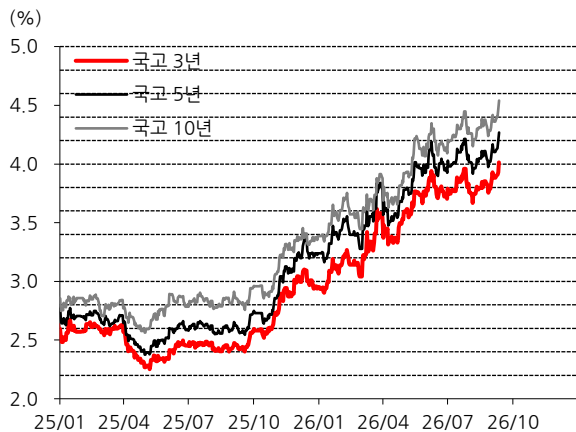
국고 3년: 3.93~4.10%
국고 10년: 4.48~4.60%

이번 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국고 3년, 10년 각각 3.93~4.10%, 4.48~4.60%을 제시한다. 미국 8월 CPI 수치는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재료다. 긴가민가했던 연준의 행보가 명확해진 만큼 시장금리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9월 FOMC 인상과 별개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완화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고 3년 금리는 당분간 4%대에 머물러 있을 공산이 크다.

통화정책에 다시
주목하면서
플래트닝 압력 우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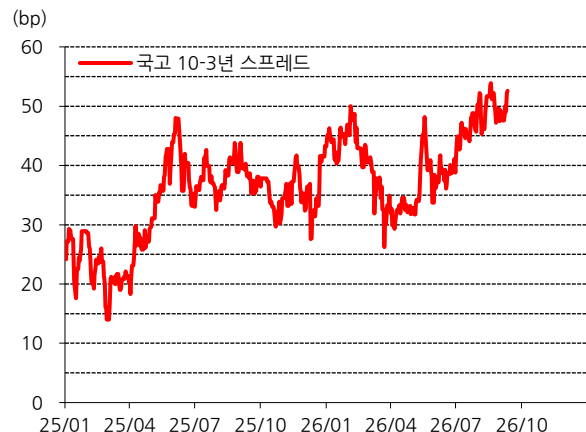
끝나지 않는 중동분쟁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행보를 강화시킨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을 명분으로 3.50% Terminal Rate를 정당화할 전망이다. ECB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추가 긴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일본은행도 주 후반 금정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영란은행도 추가 긴축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단기 국채금리의 하단을 다시 한번 올려 잡을 때다. 단기적으로는 익숙한 재정문제보다 다시 부각되는 통화정책 이슈에 주목하면서 국내외 수익률 커브 모두 플래트닝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9]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국고 10-3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9/11)		
국고 3년	2.95%(+106bp)	3.76%(+13.6bp)	4.01%(+13.0bp)	3.93~4.10%	상승
국고 5년	3.24%(+102.7bp)	4.02%(+16.1bp)	4.27%(+16.6bp)	4.20~4.38%	상승
국고 10년	3.39%(+115.5bp)	4.26%(+16.9bp)	4.54%(+18.0bp)	4.48~4.60%	상승
국고 10-3년	43.2bp(+9.4bp)	50.3bp(+3.3bp)	52.6bp(+5.0bp)	43.0~55.0bp	축소
미국 10년	4.17%(+80.0bp)	4.74%(+17.0bp)	4.97%(+18.5bp)	4.85~5.05%	강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9/8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처럼 예정된 수준이 아니며, 실제 인상 여부는 경제와 지정학적 상황의 전개 양상이 결정 - 영란은행이 목적지와 경로를 미리 정해둔 비밀 계획(secret plan)을 가지고 있으며 조건 없이(unconditional)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은 잘못되었음 - 수익률 곡선에는 영란은행의 가장 가능성 높은 정책경로만으로 설명되는 수준을 넘어서 인상이 반영. 본인은 이를 추가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비한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으로 해석 - 시장은 2026년 말까지 25bp 인상 한 차례와 2027년 추가 두 차례의 인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격에는 정책 기본경로뿐 아니라 에너지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포함 7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지표가 예상보다 다소 강하게 나왔으며(a bit stronger than expected), 경제활동도 상당한 회복력을 보유(reasonably resilient)
9/10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	- 금융안정은 조금 더 긴 시계로 봐야함. 여러가지 금융 불균형 문제를 금리 하나만으로 잡기에는 상당히 부담되고 쉽지 않은 일 - 주택시장 같은 경우 주택공급, 대출, 거주 관련 정책 등이 한 방향으로 가면서 장기간 끌고 가야하는 이슈. 이 때문에 10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 - 물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10월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 최근 격화된 중동사태는 성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현재 기준금리는 기존에 추정했던 중립금리 기준으로 보면 중립 범위의 상단 정도. 다만,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잠재성장을,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 중
9/10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 건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 -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비용압력을 재상승시킬지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 및 수요측 물가 압력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파급될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리스크,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 등에 계속 유의해야 할 것 -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취약 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
9/10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 이번 25bp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 물가 전망을 고려하면 명백한 선택(no-brainer). 완화-악화-극단적 충격 등 세 가지 에너지 시나리오에서도 인상은 타당한 결정 - 중립금리는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하는 관측 불가능한 개념이고 충격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산출되는 만큼, 연속적인 충격을 겪는 현재에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최근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고 특히 식품물가가 전망을 밑돌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longer lasting)으로 판단. 낮아진 물가 수준과 길어진 지속기간을 함께 반영해 전망을 조정 - 식품물가가 낮았던 것은 연초의 온화한 날씨, 에너지 비용 상승의 제한적인 간접 파급, 소비 바스켓과 수요 변화 등 때문. 현재 간접효과와 2차 파급은 억제돼 있지만 에너지 충격이 장기화하면 향후 식품가격에도 반영될 전망 - 유로존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충격에 예상보다 순조롭게 적응 중. 2026년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높였으며 전망 기준일 이후 발표된 2분기 성장률까지 반영하면 실제 수치는 0.9%를 웃돌 가능성 -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유로존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움직임이며, AI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식에서 회사채와 사모신용으로 확산된 점과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 등이 원인. 장기금리와 시장 간 파급 효과를 면밀히 점검 중 - 미국 연준의 유로 매도·엔 매수 개입 거래 규모가 5억유로였다는 점은 확인 - 프랑스 국채 매입 일부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은 EU 기능조약 제123조에 위배되고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금융적으로 위험(financially dangerous). - ECB의 책무는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이며, 보유채권 재투자 중단 등을 통해 유동성 규모도 4조7,000억유로에서 2조1,000억유로로 축소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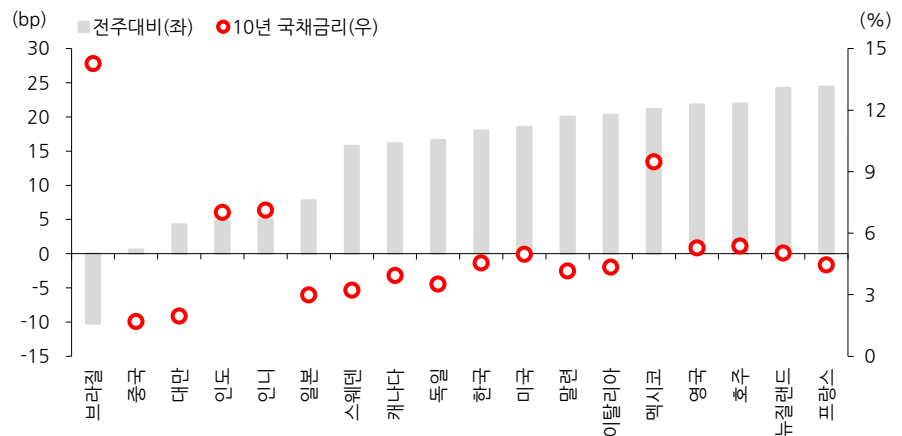
[표2] 주간 국내외 채권시장 동향

시장	금리 및 스프레드	8/28(% , bp)	전주 대비(bp)	전월 대비(bp)	연초 대비(bp)	연 평균(% , bp)
국고채	국고 3년	3.79	(6.6)	(4.1)	83.5	3.51
	국고 5년	4.02	(9.0)	(4.7)	78.1	3.74
	국고 10년	4.28	(9.2)	(0.5)	89.9	3.92
	국고 30년	4.52	(17.9)	(1.9)	126.6	3.93
크레딧	정부보증채	18.1	0.2	(1.9)	4.7	17.9
	공사채 AAA	32.2	0.2	(2.2)	9.3	31.2
	특은채 AAA	23.7	0.3	(1.9)	6.9	22.6
	은행채 AAA	32.9	0.3	(1.8)	7.5	31.5
	카드채 AA+	56.9	0.6	(3.1)	15.1	53.2
	캐피탈채 AA-	72.2	0.4	(2.5)	17.6	67.9
	회사채 AA-	67.8	0.2	(2.4)	17.0	62.0
선진국(단기)	미국 2년	4.35	10.9	6.0	87.4	3.89
	영국 2년	4.39	3.7	7.6	69.7	4.13
	독일 2년	2.89	4.8	15.0	77.4	2.49
	일본 2년	1.70	3.2	20.9	52.8	1.37
	호주 2년	4.69	9.5	10.4	62.7	4.47
	이탈리아 2년	3.10	7.8	16.7	89.7	2.65
선진국(장기)	미국 10년	4.72	(1.3)	11.4	55.3	4.39
	영국 10년	5.06	0.5	12.4	59.1	4.77
	독일 10년	3.29	2.0	15.9	43.6	2.99
	일본 10년	2.92	5.4	14.8	85.5	2.49
	호주 10년	5.08	5.0	11.6	32.6	4.89
	이탈리아 10년	4.09	0.9	18.2	54.5	3.73
신흥국	브라질 10년	14.68	3.1	(10.6)	93.0	14.13
	멕시코 10년	9.18	(3.7)	(5.0)	7.1	9.07
	인도 10년	6.91	3.5	13.0	32.4	6.82
	인도네시아 10년	6.94	(0.7)	(40.6)	83.5	6.77
	튀르키예 10년	31.80	(41.0)	(42.3)	468.5	30.45

주: 크레딧 스프레드는 만평 3사 기준 국고 3년 대비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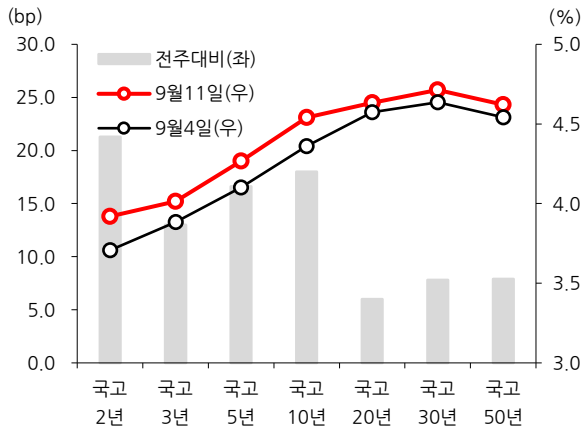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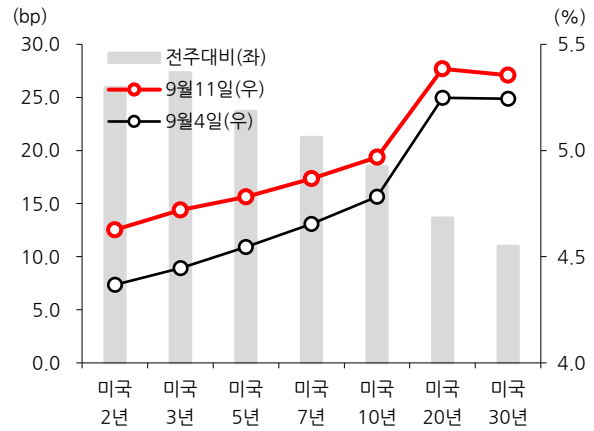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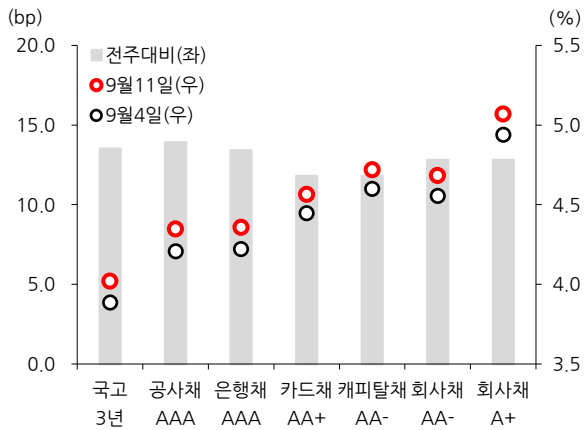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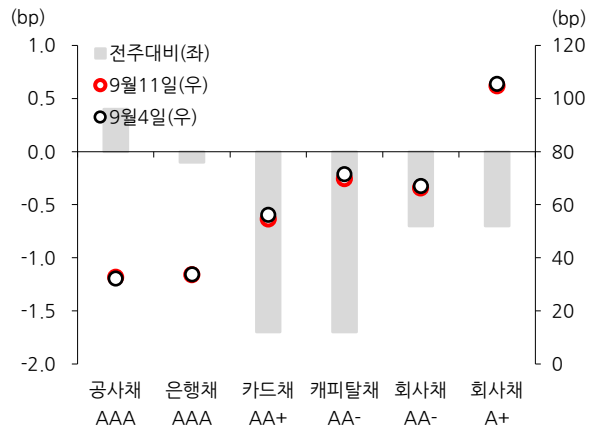
[그림14]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패션그룹형지	2026-09-10	B+	부정적	B	부정적	한국기업평가
	- 형지글로벌에 제공한 연대보증 채무의 미지급 발생 - 유동성 대응능력 취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금호타이어	2026-09-10	A	긍정적	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지역·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 및 우수한 영업실적 유지 - 강화된 영업현금창출력에 기반한 재무안정성 개선 - 원가부담과 투자 확대에도 우수한 실적 및 재무안정성 유지할 전망					
금호타이어	2026-09-11	A	긍정적	A+	안정적	NICE신용평가
	- 글로벌 사업기반 확대, 내수시장 내 우수한 시장점유율 등 우수한 사업안정성 - 북미, 유럽지역 매출 성장 등을 바탕으로 외형확대 계속될 전망 - 해상운임, 원재료 가격 상승압력이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개선된 영업수익성 지속 전망 - 확대된 현금 창출력 등을 바탕으로 CAPEX 자금소요에 대응 가능할 전망 - 영업실적 개선 및 확대된 현금 창출력 등을 바탕으로 재무안정성 개선					
일신건설(주)	2026-09-09	BB+	긍정적	BB+	안정적	NICE신용평가
	- 민간주택 중심의 사업구조로 분양경기에 대한 높은 민감도 - 낮은 분양원가에 기반한 우수한 영업수익성 - 진행 및 예정 사업장 분양실적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 진행 사업장 PF 조달 과정에서 재무부담 확대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I.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4		15		16		17		18	
연준 Black Out(-9/18) (한국) 8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1.0%, 전년비: 49.1%) (수입 전월비: -1.0%, 전년비: 18.7%)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8월) (한국) 7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7%, 전년비: 6.0%) (미국) 9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 14.1, 전월: 20.6, 전년: -7.0) (유로존) 9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31.4, 전년: 26.1) (중국) 8월 소매판매 (예상(y): 0.8%, 전월비: 0.1%, 전년비: 0.6%) 8월 산업생산 (예상(y): 4.8%, 전월비: 0.1%, 전년비: 4.5%)		(미국) 20년 국제 입찰(Reopening, 130억달러) (5.20%, 간접: 62.9%, 응찰률: 2.53배) 8월 소매판매 (예상(m): 0.9%, 전월비: -0.6%, 전년비: 5.0%) 8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1.3%, 전년비: 8.2%) (수입 전월비: -0.4%, 전년비: 5.9%)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예상: 34.0, 전월: 35.0, 전년: 32.0) (유로존) 7월 산업생산 (예상 전월비: -0.9%, 전년비: -0.8%) (전월비: 0.0%, 전년비: 0.1%)		미국 연준 FOMC 브라질 BCB COPOM 영국 영안은행 MPC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업황전망 (예상: 28.6, 전월: 47.4, 전년: 19.5) 8월 주택착공 (예상(m): 6.9%, 전월비: -12.4%, 전년비: -13.5%) 8월 미결주택판매 (전월비: -2.3%, 전년비: -2.5%) (유로존) 8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4%, 전년비: 3.3%) (Core 전월비: 0.2%, 전년비: 2.4%)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Bullock RBA 총재 연설 (한국) 8월 PPI (전월비: -0.4%, 전년비: 7.7%) (미국) 8월 산업생산 (예상(m): 0.3%, 전월비: 0.2%, 전년비: 1.1%)	
국고	10년 입찰 2조 8,000억원	국고		국고		국고		국고	
통안	3개월 입찰 7,000억원	통안	만기 4,000억원	통안	3년 입찰 1조원	통안		통안	
은행	만기 9,000억원	은행	만기 2,500억원	은행	만기 1,900억원	은행	만기 2조 2,300억원	은행	만기 1조 1,500억원
카드	만기 400억원	카드	만기 100억원	카드	만기 200억원	카드	만기 100억원	카드	만기 400억원
회사	발행 1,050억원 / 만기 6,600억원	회사	발행 1,610억원 / 만기 3,550억원	회사	만기 4,030억원	회사	만기 100억원	회사	만기 3,750억원
21		22		23		24		25	
일본 휴장(경로의 날) Goobbee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미국) 8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가활동지수 (전월: -0.08, 전년: -0.35)		일본 휴장(대체공휴일) Bullock RBA 총재 연설 (미국) 9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전월: 4.0, 전년: -12.0)		일본 휴장(추분) (미국) 2년 국제 입찰 (4.20%, 간접: 66.0%, 응찰률: 2.60배)		한국, 중국, 홍콩 휴장(추석-9/25) Paulson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미국) 5년 국제 입찰 (4.39%, 간접: 61.5%, 응찰률: 2.37배) 8월 신규주택판매 (전월비: -10.5%, 전년비: -6.3%)		(미국) 7년 국제 입찰 (4.51%, 간접: 60.8%, 응찰률: 2.50배) 8월 건축허가 (전월비: 4.3%, 전년비: 2.4%) 9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전월: 10.0, 전년: 3.0) 9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 51.7, 전년: 55.1)	
국고	5년 입찰 3조원	국고		국고		국고		국고	
통안	3개월 입찰 7,000억원	통안	만기 4,100억원	통안		통안		통안	
은행	만기 5,900억원	은행	만기 400억원	은행		은행	만기 9,800억원	은행	만기 3,900억원
카드	만기 500억원	카드	만기 100억원	카드	만기 2,800억원	카드		카드	만기 1,600억원
회사	만기 2,100억원	회사	발행 1억원	회사	만기 3,510억원	회사	만기 150억원	회사	만기 31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